

두경부 영역에 발생한 선양낭포암에서의 p53 단백질 발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성명훈 · 장근호 · 조양선

17번 염색체의 단완에 위치하여 종양의 억제에 관여하는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불활성 p53 단백질의 과도발현이 유방암과 대장암을 비롯한 인체의 여러 암에 있어서 보고되었으며 일부 암에서는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저자들은 비교적 완만히 성장하지만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 가능성이 잦은 두경부 영역의 선양낭포암에 있어서 p53 단백질 발현 양상 및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1982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추적관찰이 가능하였고 병리조직을 얻을 수 있었던 23례에 대해 p53 단백질에 대한 단클론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 23례 중 p53 단백질의 양성 발현을 보인 경우는 7례(34%)이었으며, p53 단백질의 양성 발현과 국소재발 또는 원격전이와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P53 Expression in Adenoid Cystic Carcinoma of the Head and Neck

Kwang Hyun Kim, M.D., Myung Whun Sung, M.D.

Keun Ho Chang, M.D., Yang Sun Cho,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verexpression of the mutant p53, derived from mutation of the p53 gene which is located on the short arm of chromosome 17 and plays a role in suppression of the tumor, was reported in some human malignancy such as breast or colon carcinoma and suggested to be a prognostic factor.

The authors investigated expression of p53 protein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using anti-p53 monoclonal antibody in the paraffin embedded blocks of the 23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adenoid cystic carcinoma of the head and neck between 1982 and 1991, and could be followed-up.

7 cases(34%) out of the 23 cases showed p53 express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p53 positivity and local recurrence($p=0.31$) or distant metastasis($p=0.16$)